# 통신서비스업 Weekly

통신/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.kim@daishin.com

## 1. 주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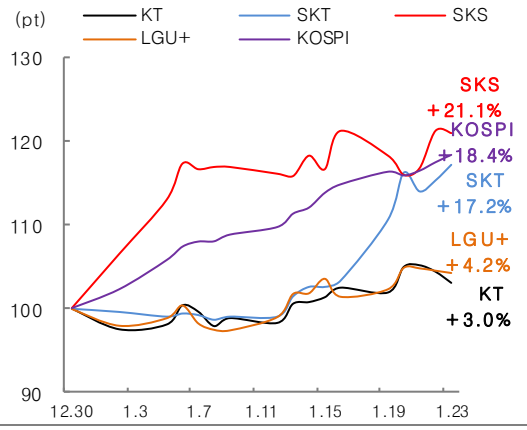
| 기업 | 25/12/30 | 01/16 | 01/23 | 연간 상승 | 수익률 | 주간 상승 | 수익률 | 12MF DPS | 배당수익률 | 주간 그래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SKT (017670) | 53,500 | 55,300 | 62,700 | ▲ 9,200 | ▲ 17.2% | ▲ 7,400 | ▲ 13.4% | 2,700 | 4.3 | |
| SK스퀘어 (402340) | 368,000 | 446,500 | 445,500 | ▲ 77,500 | ▲ 21.1% | ▼ 1,000 | ▼ 0.2% | | | |
| KT (030200) | 52,600 | 53,900 | 54,200 | ▲ 1,600 | ▲ 3.0% | ▲ 300 | ▲ 0.6% | 2,600 | 4.8 | |
| LGU+ (032640) | 14,720 | 14,930 | 15,340 | ▲ 620 | ▲ 4.2% | ▲ 410 | ▲ 2.7% | 700 | 4.6 | |
| KOSPI | 4,214.2 | 4,840.7 | 4,990.1 | ▲ 775.9 | ▲ 18.4% | ▲ 149.3 | ▲ 3.1% | | | |

주가 Comment

- 주가 코멘트: **통신도 지수의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.**
- 통신 주간 +5.9%, KOSPI +3.1%. YTD 통신 +8.6%, 지수 +18.4%. 2주 연속 상승
- 이번 주는 SKT가 상승 주도.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가입자 유입이 있었고, 1월초부터 외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으며, 투자 지분 가치도 부각
- SKT의 상승 흐름 전환은 긍정적이나, 관건은 26년 배당이 24년 수준으로 회복할지 여부. 4월 1Q26 배당 시점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KT는 주간 상승폭은 크지 않았으나, 보유 중인 현대차 그룹 등의 지분 가치가 2.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, 상승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
- 4Q25 실적은 대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나, 고객 보상 및 명퇴 등의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증익 기조 유지
- 갤S26 출시 시점에 과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, 올해 실적과 주가에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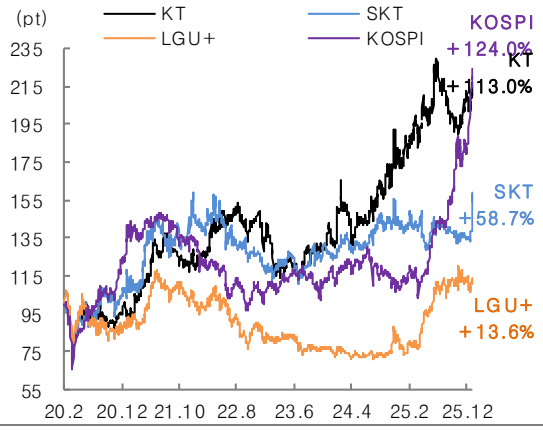
## 2. 주가 차트

### 26년 YTD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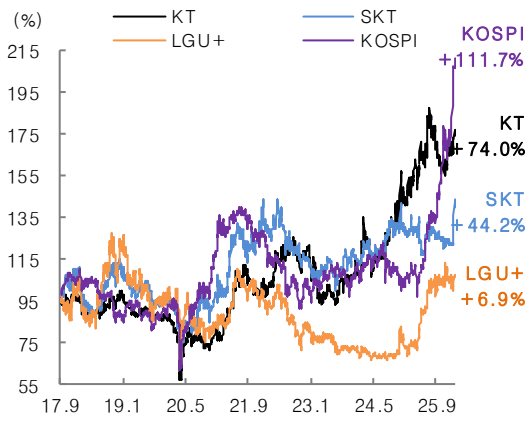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ARPU 턴어라운드(4Q19 실적발표(2/6))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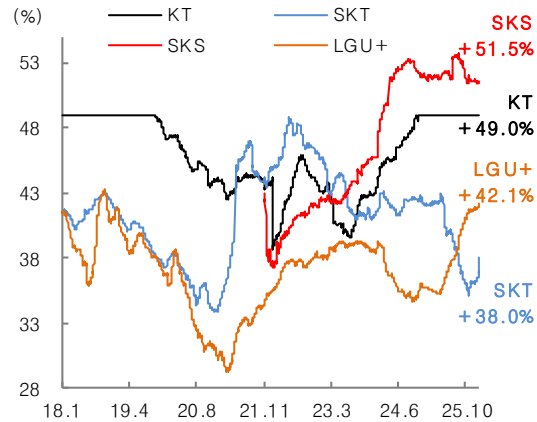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17.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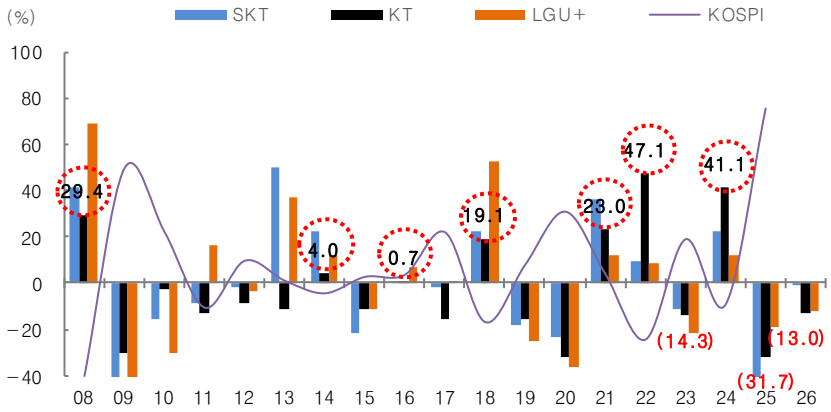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외인 지분율


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YTD 주가 상승률(KOSPI 대비 상대 수익률).
SKT +17.2%(-1.0%), KT +3.0%(-13.0%), LGU+ +4.2%(-12.0%)


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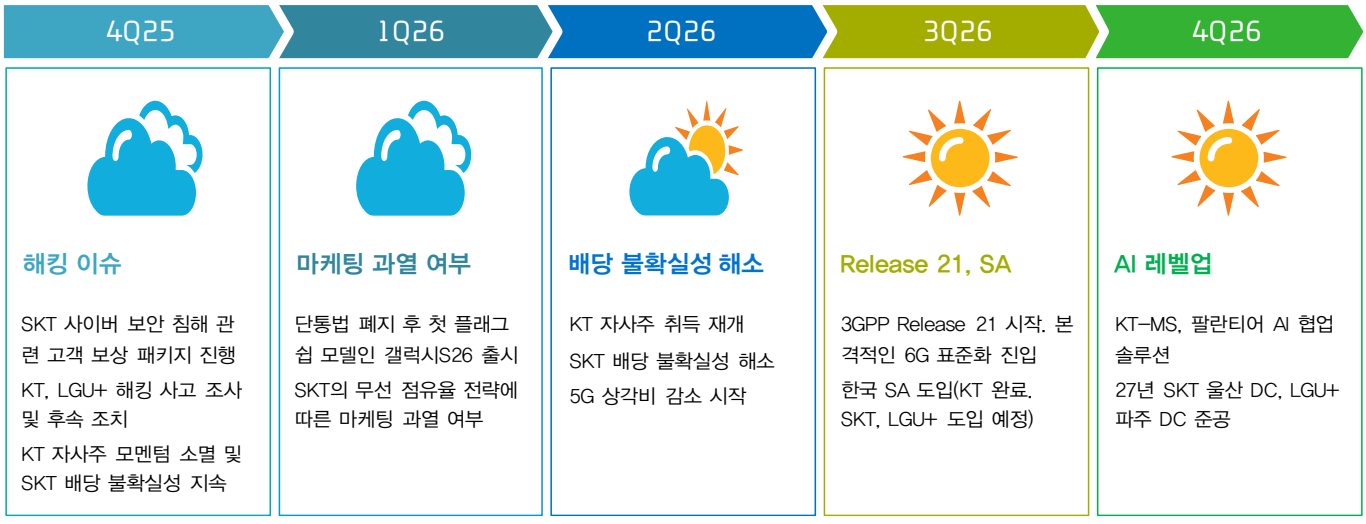
2Q 실적 시즌까지는 지수와 유사하거나 강세를 보였으나, 25.9월 정보보호 이슈로 상대적 약세 구간 진입. 26년 양호한 출발

| | SKT | KT | LGU+ | KOSPI | 상대수익률 | 상대수익률 | 상대수익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 | (11.7) | (9.4) | (19.5) | 7.7 | (18.0) | (15.9) | (25.3) |
| 20 | 0.0 | (11.1) | (17.3) | 30.8 | (23.5) | (32.0) | (36.7) |
| 21 | 41.0 | 27.5 | 15.7 | 3.6 | 36.1 | 23.0 | 11.7 |
| 22 | (18.1) | 10.5 | (18.8) | (24.9) | 9.0 | 47.1 | 8.2 |
| 23 | 5.7 | 1.8 | (7.4) | 18.7 | (11.0) | (14.3) | (22.0) |
| 24 | 10.2 | 27.5 | 1.0 | (9.6) | 21.9 | 41.1 | 11.7 |
| 25 | (3.1) | 20.0 | 42.5 | 75.6 | (44.8) | (31.7) | (18.9) |
| 26 | 17.2 | 3.0 | 4.2 | 18.4 | (1.0) | (13.0) | (12.0) |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/ 주: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.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(+)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

## 3. 26 년 산업/주가 기상도

성장은 낮아도, 마케팅비와 감가비 부담 완화로 이익은 꾸준히 상승. 26E OP5.4조원(+15% yoy). 해킹 마무리, 배당 불확실성 해소되는 2Q26부터 상승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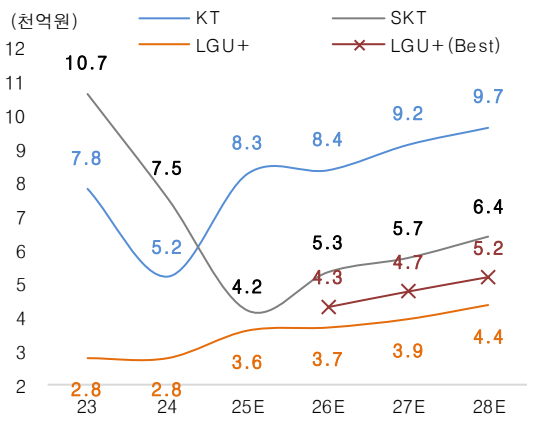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4. 주간 코멘트

| LGU+ 오픈 API 플랫폼, SKT 과징금 취소 소송, SKT 고객신뢰위원회, EU DNA, 통신3사·방미통위 간담회 | |
|---|---|
| LGU+<br><br>LGU+<br>오픈 API 플랫폼 | 1. LGU+가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협력해 '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(Open API Gateway)'을 개발, 통신 산업 생태계 개방 및 활성화 행보 본격화<br>2. 오픈 API는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·기업에 제공하는 기술로,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이 상용화를 추진 중인 핵심 흐름<br>3. LGU+ 플랫폼은 단말 번호 인증, SIM 변경 정보, 단말 위치·상태·기기 변경 정보 등 보안·인증 API와 함께, 필요 시 통신 품질을 높이는 QoD(Quality On Demand) 기능 제공<br>4. 외부 개발자는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통신 기능을 API 형태로 손쉽게 활용 가능, 서비스 개발 시간·비용 절감과 금융·보안 서비스 고도화 기대<br>5. 금융 분야 적용 사례로는 ATM 현금 인출 시 휴대전화 위치 정보 기반 본인 확인, 복제 유심 여부 검증 등 금융사고 예방 활용 가능성 제시<br>6. LGU+는 아리아텍과의 협업을 계기로 표준 API 생태계 확장 의지 재확인, 향후에도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 |
| 긍정적 | ▪ 25년 3사 모두 해킹이라는 이슈를 겪은 만큼,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|
| SKT<br><br>SKT 과징금<br>취소 소송 | 1. SKT가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1,348억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<br>2. 서울행정법원은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접수, 법적 판단 절차 본격화<br>3.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약 2,700만 명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후, 같은 해 10월 과징금 부과 의결이 내려진 데 따른 대응<br>4. SKT는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이 적용된 점이 유사 사례 대비 과도하다고 문제 제기, LGU+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<br>5.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직·간접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, 유심 무상 교체·보호 서비스 등 적극적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도 소송 근거로 제시<br>6. SKT는 과징금을 우선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,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 제재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|
| 중립적 | ▪ SKT가 충분한 고객 보상 패키지를 시행했기 때문에,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공감. 다만,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이니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|
| SKT<br><br>SKT<br>고객신뢰위원회 | 1. SKT가 고객신뢰위원회와 올해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,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 성과 점검과 2026년 강화 방안 논의 진행<br>2. 간담회에는 정재헌 대표이사, 한명진 MNO CIC장,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경영진과 안완기 위원장 포함 위원 12명 참석, 고객 신뢰 회복의 실행력 제고에 초점<br>3. 고객신뢰위원회는 2025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△소비자 보호 △고객 커뮤니케이션 △사회적 책임 강화 △소비자·인사이트 등 4개 분과 신설 결정<br>4. 각 분과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, 김채연 고려대 교수, 손정혜 변호사,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아 고객 보호·소통·심리·사회적 책임 자문<br>5. 위원회는 분과별로 고객 중심 인사이트 공유, 인지심리 기반 커뮤니케이션 자문, 분쟁 발생 시 신속·투명한 조정 지원 등 실질적 개선 권고 역할 수행 예정<br>6. SKT는 고객신뢰위원회와 함께 100명 규모 고객자문단 역할도 확대, 상품·서비스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고객 참여를 강화하며 체감형 신뢰 회복 전략 |
| 긍정적 | ▪ 25년은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및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급락했지만, 26년 실적은 24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<br>▪ 다만, 실적 회복 외에도 신뢰 회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신뢰위원회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 |
| 산업<br><br>EU DNA | 1. EU 집행위원회가 통신 규제를 단일 체계로 통합한 '디지털네트워크법(DNA)'을 발의하며 EU 차원의 통신 정책 주도권 강화<br>2. DNA 법안에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시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분쟁조정 메커니즘 도입, 트래픽 유발 이익의 네트워크 투자 공유 원칙 명문화<br>3. 분쟁 발생 시 일방 요청만으로도 회원국 규제기관이 조정회의를 구성하고 권고안·보고서를 제시하는 구조 설계<br>4. EU 전자통신규범(EECC)을 지침이 아닌 규정(Regulation)으로 전환해 회원국별 입법 절차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 추진<br>5. 주파수 사용 기한 폐지, 2035년 레거시망 종료, 중국 통신장비 사용 제한 등 투자 안정성과 안보 강화 조치 포함<br>6. EU의 규제기관 중심 분쟁조정 모델이 국내 망 이용대가 법제화 논의에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 부각 |
| 긍정적 | ▪ OTT, AI 등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요인은 많지만, 트래픽 급증에 따른 투자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<br>▪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세웠다가 철회, 현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<br>▪ 한국은 2010년도 초반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으나, 역시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|
| 산업<br><br>통신3사·방미통위<br>간담회 | 1.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내달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통신3사 CEO들과 첫 공식 간담회 개최 예정<br>2. 간담회에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, 김영섭 KT 대표,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참석,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직접 대면<br>3. 핵심 의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로,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 개선 방안 논의 가능성<br>4.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슈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, 통신사들의 정부 차원 정책 지원 요청 가능성<br>5. 글로벌 빅테크의 트래픽 유발 대비 비용 부담 문제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 지속,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네트워크법(DNA) 발의가 참고 사례로 부상<br>6.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확보 가능성 제기, 향후 통신 정책 결정과 제도 정비 논의에 속도 전망 |
| 긍정적 | ▪ 트래픽 이슈는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,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중요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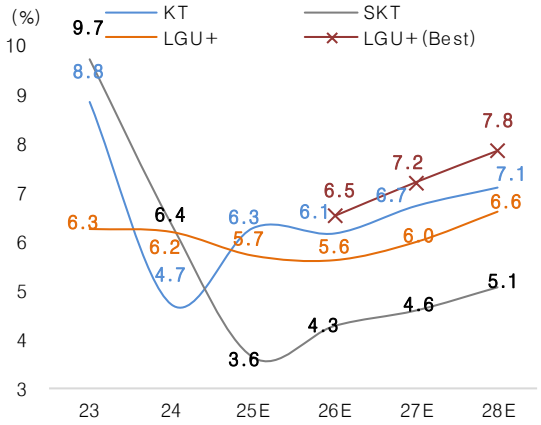
## 5. 주요 지표

###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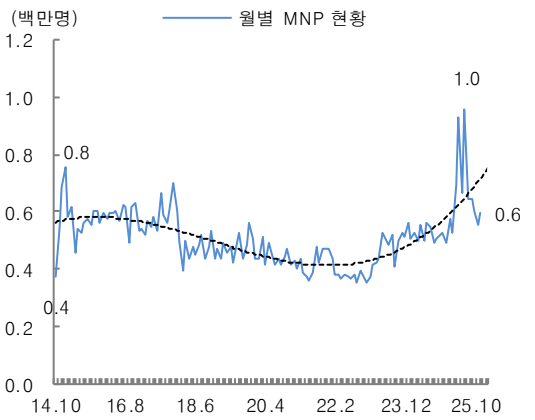

자료: 각사IR,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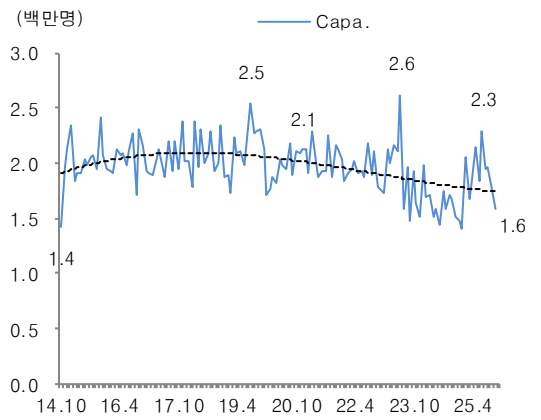

자료: 각사IR,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번호이동(25.12월) 594천명, +43천명 mom. 24년 평균 521천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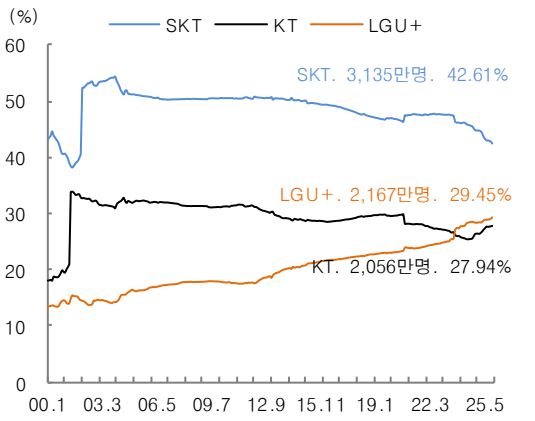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Capa.(신규 + 번이 + 기변) 159만명(25.11월). 24년 평균 하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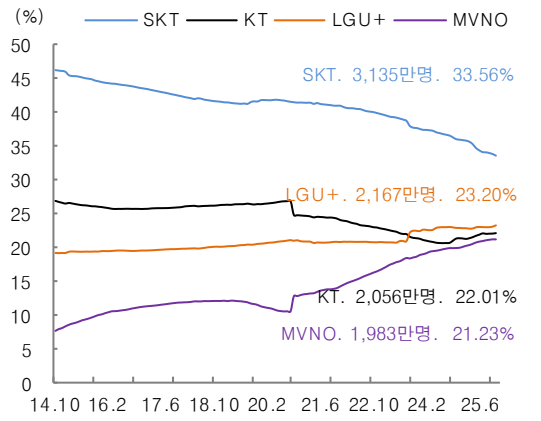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총회선 점유율(25.11월). MNO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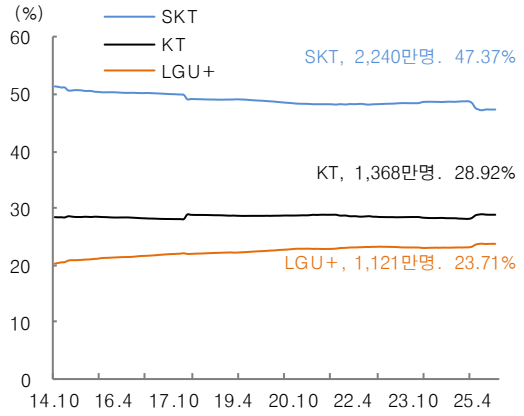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총회선 점유율(25.11월). MVNO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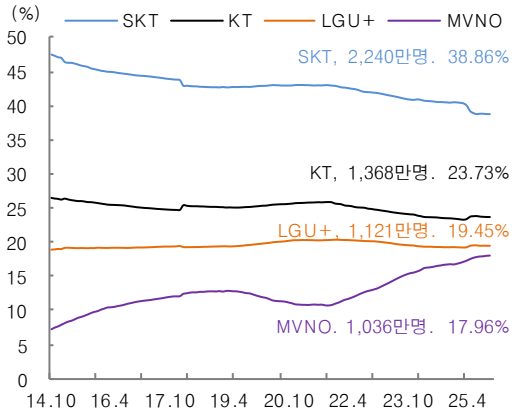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휴대폰 점유율(25.11월). MNO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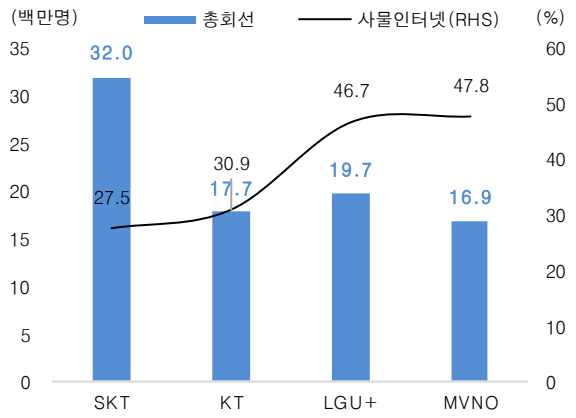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휴대폰 점유율(25.11월). MVNO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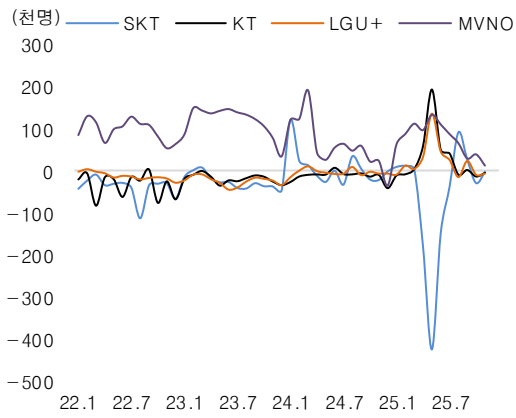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총회선 vs. 사물인터넷 비중(25.1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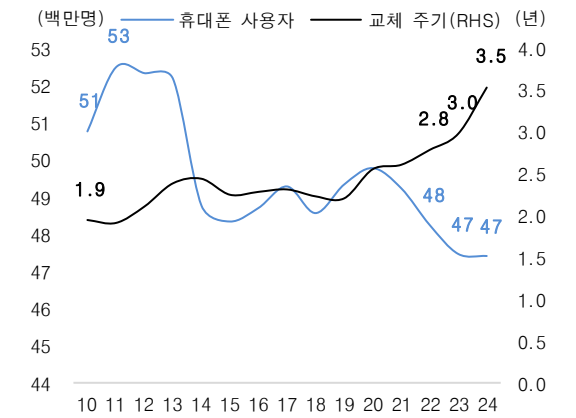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휴대폰 순증(25.1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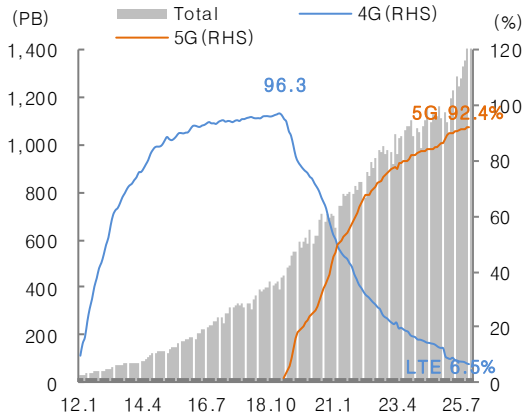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휴대폰 교체주기 3.5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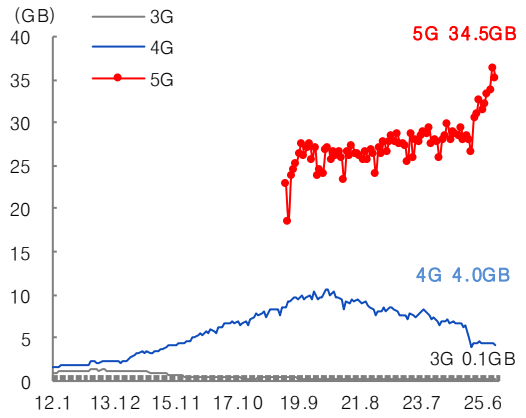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5G 트래픽 비중 92.4%(25.1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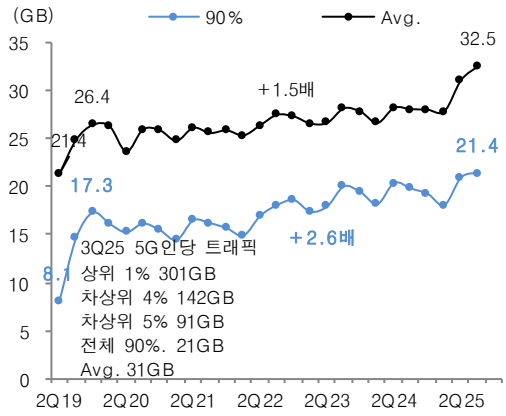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4.5GB(25.11월), -1,135MB m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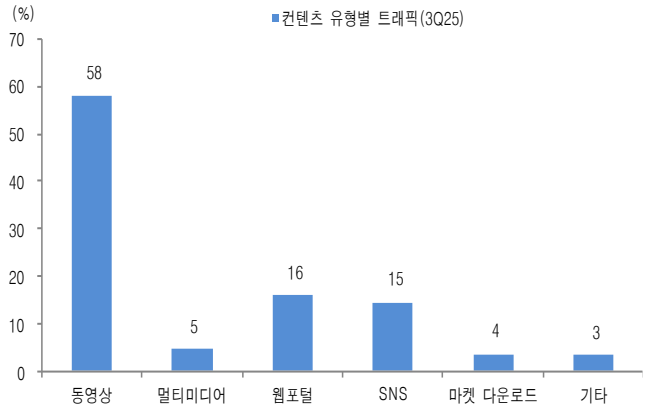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5G 트래픽 추이(3Q2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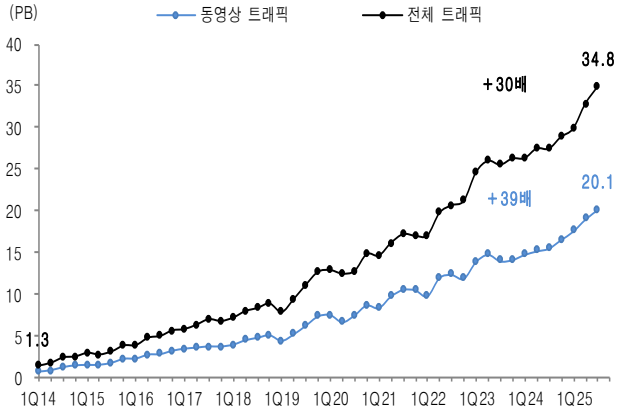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(3Q2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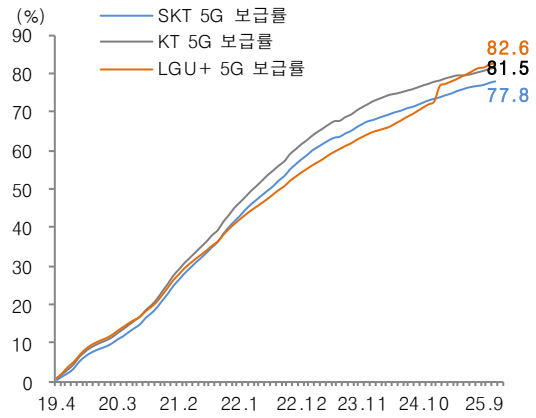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동영상 트래픽 vs. 전체 트래픽(3Q2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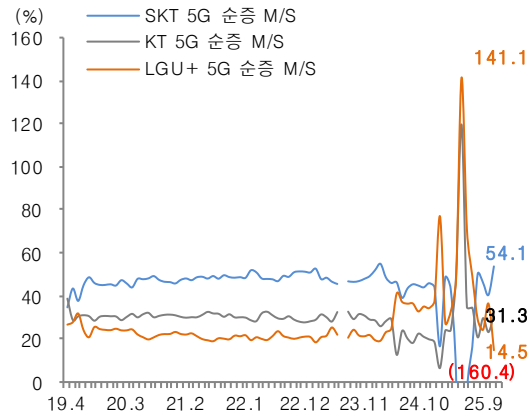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.0%(25.1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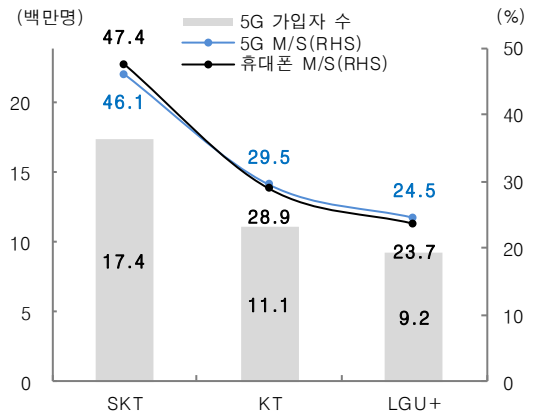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# 5G 순증 점유율(25.11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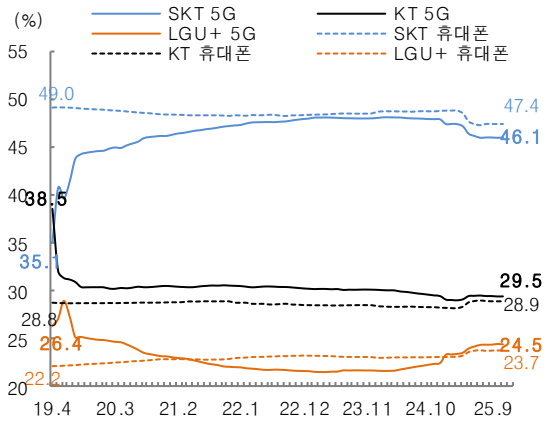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5G 점유율 vs. 휴대폰 점유율(25.11월)


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5G 점유율 vs. 휴대폰 점유율(25.11월)


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(담당자: 김회재)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